

“지방상수도 현대화 완성도 높여야” 진안군, 세종사무소 본격 운영

무주군의회, “공사 5년차에 우수율 오히려 떨어져 목표 달성 심각한 의문”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율과 우수율 모두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주군의회는 무주군과 시행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벽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첫 번째 장소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다.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우수율을 높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관망정비와 블록·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예산 293억여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2017~2021년 5년 동안 진행되며 2022년에는 성과보전과 우수율 유지 및 누수가 발생하는 지점을 보완하며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무주군의회는 이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매우 많고, 지적사항 개선도 부진하다고 보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제281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의 공정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공사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이 군정질문에서 대책을 묻는 등 그 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무주군의회는 특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목표한 우수율 85%를 사업



무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첫 번째 장소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다.

기간 내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해연 의원은 현장방문에서 “2016년 12월 우수율이 56.7%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50%로 오히려 6.7%가 떨어졌다. 지금까지 실적이 이런데 어떻게 85%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의외로서는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며 월별 우수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전력과의 적절한 업무협의를 거쳐 공사를 같이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기존 가압장과 신규 가압장이 서로 연동되지 않는 점, 터파기 공사시 부실한 밀다짐으로 관로파손이 우려되는 점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무주군과 한국환경공단이 제시

하는 사업 완공시기가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에 관한 계약서를 요구했다. 사업 완공시기에 관한 해석은 성과보증기간과 맞물려 예산추가 등으로 연결돼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폐 관로를 걸어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은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추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박찬주 의장은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참아온 데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면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 공급이라는 사업목적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효율과 속도,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실무담당자 파견·각종 사업 추진 위한 국비 확보 총력

진안군은 1월부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내에 꾸린 진안군 사무소를 본격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정방향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 동향파악에 대한 기반강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중앙과 지방간 협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회관에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예산 배이스캠프를 구축해 지자체별 더 많은 국가예산 파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진 진안군은 실무담당자를 세종사무소로 파견하고, 그 곳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2022~2023년 국가예산

사업 발굴’, ‘2040 진안군 중장기 및 미래전략계획수립’, ‘2021년 진안군 혁신뉴딜 TF팀 연중 운영’ 등 우리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진안군 세종사무소를 활발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풍요로운 진안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세종사무소 본격 운영을 통해 신규 및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부처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단계 연계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진안군 대도약을 위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도는 2016년부터 시군 통합 세종사무소를 운영하여(14개 시군 중 12개 참여) 중앙부처 인맥 공유 및 시·군 연계 협력을 통해 전북도 예산 7조원 시대 진입 3년 만에 2021년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무주군이 숲 보전과 군민의 안전 차원에서 산불 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빠른 대응 전략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산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본부는 10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이 기간 동안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34명과 감시원 48명을 읍·면 임야에 배치하고 집중적인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 할 계획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헬기를 운영, 조기 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농기센터, 축산경영·환경개선 위한 신청자 모집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축산경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9억6,900만원을 투입하는 2021년 축산분야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양봉분야의 경우 지난 15일 사업 신청 희망자 모집이 완료됐다.

축산분야의 경우 고품질 축산물 생

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320-2826~8)로 문의하시면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과 사업대상,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전춘성 진안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전춘성 진안군수는 25일 지방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심민 입심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자매도시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등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전춘성 군수는 챌린지에 동참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1년 앞두고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진안군이 함께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인구소멸 대응 TF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중심의 참된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중심에 서서 중앙정부와 함께 고려와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번 챌린지 참여자로 김승수 전주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를 지명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빈중석 무주경찰서장 취임

무주경찰서 제74대 빈중석 경찰서장이 25일 취임했다.

이날 사회계 거리두기 등 이행 실천을 위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공식사항을 통해 경찰서장 취임사로 대신했다.

빈중석 서장은 “국민중심 경찰개혁의 시대를 맞아 자치경찰의 안착과 책임수사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주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무주경찰이 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체 울타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빈중석 서장은 경기대 행정학과를 졸업 후 2000년 간부 48기 경위로 임용, 2019년 총경으로 승진, 세종청 경무기회장을 역임 후 무주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설맞이 장수사과 선물세트’ 온라인 판매

오늘 오후 3~4시까지 진행

장수군은 26일 서울시 상생사회와 공동으로 장수사과 소비촉진을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25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농산물 구매 트렌드가 비대면인 온라인 구매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 설맞이 장수사과 선물세

트 라이브 판매를 마련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26일 오후 3~4시까지 진행되며 장수술사과, 윤술사과 농가가 참여해 장수사과(특대) 5kg 5만15,000원, 특(5kg) 5만1원, 대(5kg) 4만15,000원 등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장수사과선물세트 300여 박스를 도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판매에 참여하는 농가는

대를 이어 농사짓는 장수 대표 청년 브랜드로, 제조제나 착색제, 비대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사과이며, GAP인증, 저탄소인증, 가톨릭농민회 우리농 자주인증을 받았다.

방송은 상생사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생사회 네이버 쇼퍼라이브 채널, 네이버 쇼퍼라이브 메인 채널을 통해 생방송 진행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치매가족 교육 프로그램 ‘헤아림’ 운영

무주군이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가족교육 프로그램 ‘헤아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헤아림’은 가족들이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가족교실이다.

무주군치매안심센터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치매안심센터 배움터에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

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치매알짜정보 ▲가족공예 등의 주제로 단계별 진행된다.

교육관련 사항 및 치매관련 상담은 무주군치매지원센터(063-320-8601)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